찾아가는 한의약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유성형 한의 방문진료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소창우 주무관

대전 유성구는 2023년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유성형 한의 방문진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의 집으로 직접 한의사가 찾아가 건강을 돌보는 생활밀착형 건강서비스다. 2024년 한 해 동안 129명의 어르신에게 총 1,983건의 진료를 제공했으며, 만족도는 92%에 달했다. 단순히 침을 놓고 약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환경 개선과 정서적 돌봄까지 함께 아우르는 이 사업은 '한의약 기반 지역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유성형 한의 방문진료사업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나요?

유성구는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성구는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관내가 도심과 외곽으로 나뉘다 보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돌봄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한의약의 강점을 살린 지역 맞춤형 건강돌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체계로 운영되며, 협력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사업의 전체 조율은 유성구청 통합돌봄팀이 담당합니다. 대상자 발굴 및 초기 상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측정, 정신건강 서비스 등 의료지원은 보건소가 담당하며, 실제 진료는 유성구 한의사회에서 맡습니다. 이 외에도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간호팀, 지역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다직종-다기관 통합돌봄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공동 방문을 통해 유기적인(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나요?

대상자는 병원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이웃 주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의 추천과 상담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후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한의사가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진료합니다. 침, 뜸, 한약처방 등 한의약적 방법뿐만 아니라, 건강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보호자와의 소통까지 포괄적인 진료가 제공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29명의 어르신에게 1,983건의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어르신들이 "누가 찾아와주기만 해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아픈 부위만을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활 전반을 살펴주는 진료가 정서적으로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도 “한의사가 환자의 일상까지 이해하려는 점이 인상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체 메신저를 통해 진료 내용과 건강 상태를 보호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이 있다면요?

처음에는 기관 간 용어 차이, 행정 절차,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꾸준한 소통으로 점차 안정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어르신을 함께 돌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점차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협업이 원활해졌습니다.

유성형 한의 방문진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강점은 ‘생활밀착형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 중 어르신의 앉는 자세가 불편해 보이면 의자에 방석을 덧대어 드리고, 단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경우엔 식단 조절을 권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생활지도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한의계가 수평적으로 협력한다는 점도 이 사업의 독창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점이 궁금합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이나 가족과 떨어져 있어 느끼는 고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이 상담과 치료를 통해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할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직군 간 협업이 강화되고, 실무자 간의 사례 공유 및 전문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2025년에는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등을 함께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한의약 서비스가 고립된 돌봄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역 건강안전망의 일부로 자리 잡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데이터 관리를 위해 사업 관련 기록과 분석 체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팀과도 공동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고, 사업 성과를 시각화하여 성과지표 기반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본 사업이 유성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